

요약

- 고금리 확정형 보험에서 발생하는 이차역마진으로 보험산업의 자본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기본자본 비율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자본관리 전략 모색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노후소득 보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자산집약형 재보험(Asset-Intensive Reinsurance)은 투자 위험 이전을 주목적으로 하는 재보험으로, 보험회사의 자본 효율성 제고 및 자산운용 수익률 확보 수단으로 주목받으며 해외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함
- 자산집약형 재보험 시장은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빠르게 성장하였는데, 공통적인 성장 요인으로는 원보험회사의 자본 부담이 높은 보험계약의 이전, 사모펀드와 제휴한 재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성 활용, 역외거래를 통한 자본 부담 완화 등이 있음
- 일본에서는 시가 기반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및 연금보험 수익률 제고에 대한 소비자 수요 증가로 인해 자산집약형 재보험 시장이 성장하였는데, 기본자본 지급여력제도의 도입과 수익률 제고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일본의 사례를 직접적으로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최근 사모신용 시장에서 나타나는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는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는 자산집약형 재보험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음
- 자산집약형 재보험 거래는 이차역마진 부담 완화, 자본관리 효율성 및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전략적·정책적 검토가 필요함

1. 배경

○ 고금리 확정형 보험에서 발생하는 이차역마진으로 보험산업의 자본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기본자본비율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자본관리 전략 모색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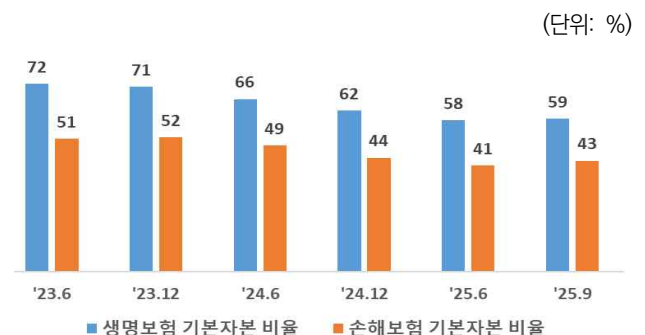
- 저금리 환경이 장기화되고 IFRS17, K-ICS가 도입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과거 판매한 고금리 확정형 보험에서 이차역마진이 지속되며 보험산업의 자본 부담을 가중하고 있음
 - 부채 할인율이 낮아지고 부채의 시가평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1990~2000년대 판매한 장기 고금리 확정형 보험을 보유한 보험회사는 이익잉여금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감소하며 가용자본이 감소하고, 금리위험액 증가로 인해 요구자본이 증가하며 지급여력비율이 악화됨
- 보험회사는 후순위채권, 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성증권을 발행하며 보완자본 중심으로 자본 조달을 하였지만, 2027년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본자본 중심의 자본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임¹⁾
 - 기본자본은 보통주,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후순위채권 등 보완자본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기본자본 구성 요소를 확충하는 방식의 자본관리가 필요함
-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자본관리를 돕기 위해 계약이전, 공동재보험 등 부채관리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지만, 현재까지 활용 사례는 많지 않음²⁾

〈그림 1〉 국채 10년물 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그림 2〉 보험산업 기본자본 비율 추이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 한편,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사회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노후소득 보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사망률의 개선, 1~2인 가구 증가 등에 따라 사망 담보 중심의 종신보험보다는 연금 등 생존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³⁾
- 이러한 소비자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보험회사가 노후소득 보장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 수익률 개선이 동반되어야 함

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 1. 14.), “보험회사가 충분한 기본자본을 보유하도록 하여 든든한 보험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 3. 17.), “보험산업이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미래대비과제 추진”

3) 김세중·김윤진(2022), 「종신보험 시장 동향 및 시사점」, 보험연구원

- 자산집약형 재보험(Asset-Intensive Reinsurance)은 보험회사의 자본 효율성 제고 및 자산운용 수익률 확보 수단으로 주목받으며 해외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함
 - 자산집약형 재보험은 원보험회사(출재사)의 부채뿐만 아니라 자산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모두 이전하는 재보험이며, 원보험회사는 자본 부담이 높은 계약을 이전하고 재보험회사는 자산운용의 강점을 활용하여 높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음
 - 미국에서는 역외 재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자산집약형 재보험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2026년 시행된 시가 기반 신지급여력제도에 대응한 자본관리 효율화와 수익률 제고를 위한 자산집약형 재보험 활용이 증가함
- 본고에서는 자산집약형 재보험의 정의와 특징, 그리고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의 성장 배경과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함

2. 자산집약형 재보험의 특징과 성장 배경

가. 정의와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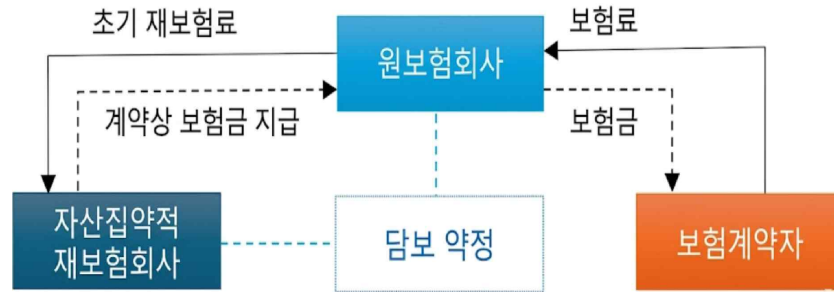
- 자산집약형 재보험은 투자 위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재보험으로 주로 연금보험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지며, 원보험회사는 재보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신탁과 같은 담보 약정을 체결하기도 함
 - IAIS(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의 정의에 따르면, 자산집약형 재보험은 일부(Some) 보험 위험과 상당 부분(Significant) 투자 위험을 이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보험계약을 의미함⁴⁾
 - 기존 재보험은 사망, 장수, 계약자 행동 등의 보험 위험 이전을 주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자산집약적 재보험과 차이가 있음
 - 자산집약형 재보험계약에 참여한 재보험회사는 보험 위험을 이전하기 위해 제3의 재보험회사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하기도 함
 - 원보험회사는 재보험계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거래상대방위험, 환수위험⁵⁾ 등을 완화하기 위해 신탁 형태의 담보 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이전하거나, 자산을 이전하지 않고 계정분리 형태로 자산 관리만을 재보험 회사에게 맡기고 있음
 - 주로 연금보험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유니버설라이프(ULSG), 변액연금(VA) 등의 보험계약도 포함됨⁶⁾

4) IAIS(2025), "Issues Paper on structural shifts in the life insurance sector"

5) 거래상대방위험(Counterparty risk)은 재보험회사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의미하며, 환수위험(Recapture risk)은 재보험계약의 일부 혹은 전부가 조기 종료되어 원보험회사가 재보험회사로부터 재보험계약에 수반되는 자산, 부채를 다시 회수해야 함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임

6) PWC(2026. 2. 3.), "Asset-intensive reinsurance: What's ahead in a growing, complex and fast-moving market"

〈그림 3〉 자산집약형 재보험 구조



자료: IAIS(2025), "Issues Paper on structural shifts in the life insurance sector"

○ 자산집약형 재보험 거래가 성사되는 주요 동인은 원보험회사의 자본 부담이 높은 보험계약의 이전을 통한 자본 관리, 재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성 활용, 국가 간 규제 차이 등이 있음⁷⁾

- 원보험회사는 이차역마진이 발생하는 보험계약을 이전하여 자본을 확충하고 자본 변동성을 낮출 수 있으며, 확충한 자본을 활용하여 전략적 상품에 대한 인수 역량 혹은 신성장 기회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성장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음⁸⁾
- 재보험회사는 신규 보험계약 체결 비용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 재원을 확보하여 운용자산 규모를 확대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 전문성을 활용하여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보다 높은 수익을 달성함으로써 추가적인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음
 - 재보험회사는 글로벌 사모펀드를 모회사로 두거나 전략적 제휴를 맺어 자산운용 역량 강화를 이루기도 함
- 또한 자산집약형 재보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으로는 국가별 규제 차이를 통해 자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역외로 자산을 이전하는 거래가 가능하였기 때문임⁹⁾
 - 버뮤다, 케이맨 제도 등의 지역에서는 자산 수익률을 반영하여 부채를 할인할 수 있는 시나리오 기반 접근법(SBA)을 제공하여 고수익 비유동성 자산에 대한 자본 부담이 낮아지며,¹⁰⁾ 준비금 평가 기준, 자본 요건, 사모 자산 투자에 대한 규제 등도 비교적 엄격하지 않고 법인세율이 낮음¹¹⁾

〈표 1〉 자산집약형 재보험 거래의 동인

원보험회사	재보험회사
• 시장위험, 신용위험, 장수위험 등을 이전하여 자본관리 • 전략적 상품에 대한 인수 역량 확대 • 신성장 기회에 대한 투자 확대	• 운용자산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 • 자산운용 전문성을 활용한 수익률 제고 • 안정적인 투자 자원 확보 • 신규 보험계약 체결 비용 완화

자료: 저자 작성

7) BIS(2024), "BIS Quarterly Review"

8) FIO(2024), "Annual Report on the Insurance Industry"

9) AAA(2024), "Asset Intensive Offshore Reinsurance Considerations"

10) Moody's(2024), "Regulation contributes to material differences in private credit allocation"

11) Global Finance(2025. 9. 8.), "Private Equity's Growing Role In Insurance: Rewards And Risks"

○ 자산집약형 재보험은 과거 판매한 보험계약을 일괄 이전하는 블록형 거래, 신규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계약을 이전하는 플로우형 거래로 나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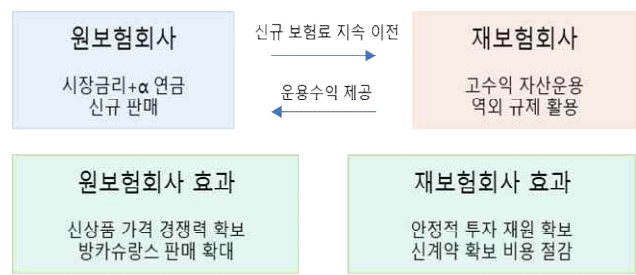
- 블록형 거래는 이차역마진이 발생하여 자본 부담이 높은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원보험회사의 자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짐
- 플로우형 거래는 경쟁사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연금보험을 출시하여 방카슈랑스 등의 채널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규 판매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짐

〈그림 4〉 블록형 거래의 특징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 플로우형 거래의 특징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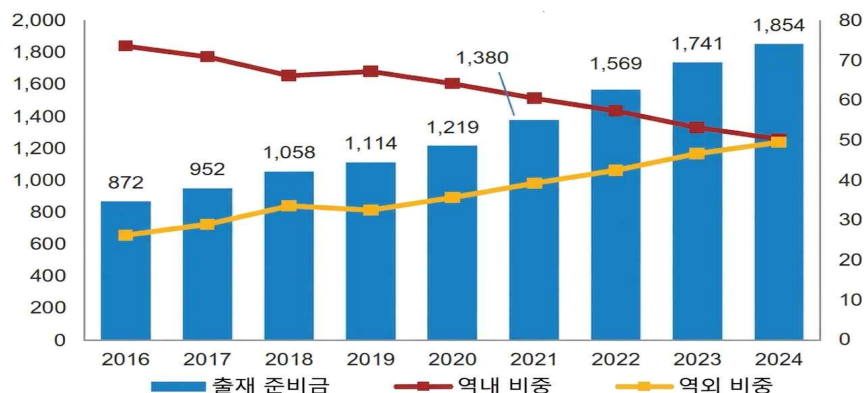
나. 미국, 영국, 일본 국가별 성장 배경

○ 미국은 자산집약형 재보험 시장이 가장 발달한 국가이며, 버뮤다 중심의 역외거래를 통해 시장이 성장함¹²⁾

- 자산집약형 재보험 시장이 역외거래를 통해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미국 생명보험회사의 역외 출재준비금 비중은 2016년 20%대에서 2024년 약 50%까지 상승함

〈그림 6〉 미국 생명보험회사 출재준비금(Reserved Ceded) 추이

(단위: 십억 달러, %)



자료: AMBest(2025), "Best's Special Report: Bermuda Remains the Largest Offshore Life Annuity Reinsurance Domicile"

12) FIO(2024), "Annual Report on the Insurance Industry"

- 미국 자산집약형 재보험 시장이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었던 주요 배경으로는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의 필요성, 글로벌 사모펀드의 보험산업 진출, 역외거래를 통한 자본 부담 완화 등이 있음
 - 과거 생명보험회사들은 주로 국공채나 우량 회사채에 투자해 왔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가 장기화되며 이차역마진을 막기 위해 수익률 추구(Reaching for yield)의 필요성이 높아짐
 - 한편 팬데믹 종식 이후 금리가 상승했음에도 미국 베이비부머 세대가 대거 은퇴함에 따라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연금 상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증가했고, 이는 자산집약형 재보험 시장 성장을 가속화함
 - 미국에서 빠르게 성장한 사모펀드들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¹³⁾ 보험료 수취가 가능한 연금 등 보험계약을 통해 투자 및 수수료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M&A를 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보험산업에 진출함
 - 글로벌 사모펀드들은 비유동성 프리미엄의 확보가 가능한 사모신용 등 대체투자에 강점이 있었고,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의 필요성이 높아진 보험산업은 사모펀드의 강점을 활용함
 - 사모펀드와 생명보험회사가 결합하여 만들어 낸 사업 구조가 자산집약형 재보험이며, 버뮤다, 케이맨 제도 등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시나리오 기반 접근법(SBA)는 고수익 자산에 투자 시에 자본 부담을 완화하여 시장 성장의 동인이 됨
- 영국은 BPA¹⁴⁾ 시장 확대, 금리 상승 및 인구 구조 변화 등을 바탕으로 연금 시장이 성장하였는데, 이는 자산 집약형 재보험¹⁵⁾ 시장 성장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함¹⁶⁾
 - 팬데믹 이후 금리 상승은 DB형 연금의 부채 할인율을 높여 부채 평가액을 하락시켰으며, 이는 보험회사의 연금 인수 비용 부담을 완화하며 BPA 거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됨¹⁷⁾
 - 또한 금리 상승 및 기대수명 증가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연금 수요를 확대하며 연금 시장 성장을 가속화함
 - 영국에서는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중 연금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이를 정도로 연금 시장이 발달함¹⁸⁾
- 영국 자산집약형 재보험 시장 성장의 배경은 연금 수요 확대에 따른 자본관리 및 수익률 제고의 필요성이 높아 졌기 때문이며, 거래 형태로는 블록형과 플로우형 모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
 - 영국 생명보험회사는 연금 수요 확대에 따른 자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역외거래 중심의 자산집약형 재보험을 통해 투자 위험을 이전함
 - 영국 Solvency UK에서는 매칭조정을 통해 투자 자산에 따라 부채 할인율을 조정해 주고 있지만, 버뮤다의 시나리오 기반 접근법(SBA)과 비교하여 적용 요건이 엄격함¹⁹⁾
 - 또한 미국 사례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사모펀드와 제휴하여 자산집약형 재보험을 성사시킴으로써 자산운용 수익률을 높이고 연금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13) 보험상품은 해약 시 페널티가 부과되기 때문에 뱅크런과 같은 대규모 유동성 이탈 가능성이 낮으며,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한 투자자 모집의 부담이 적어짐

14) BPA(Bulk Purchase Annuity)는 기업의 확정급여형(DB) 연금의 부채와 자산을 보험회사로 이전하는 것으로 PRT(Pension Risk Transfer)의 한 형태임

15) 영국 및 유럽에서는 자산집약형 재보험이 주로 FundedRe라는 용어로 사용되지만, 본고에서는 자산집약형 재보험으로 통칭함

16) BOE(2025), "Alternative Life Capital: Supporting innovation in the life insurance sector"

17) LCP(2025), "Insurers up their game amidst a changing landscape"

18) 영국 중앙은행(BOE)의 "Insurance aggregate data annual report"를 참고하였으며, 2024년 말 기준임

19) Finalyse(2024), "BMA's EBS Framework vs. Solvency II: Key Differences for Life Insurers"

- 한편, 초기 자산집약형 재보험이 고금리 보유계약 중심의 일회성 블록 거래가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신규 계약을 대상으로 하는 플로우형 거래가 빠르게 증가하며 시장 구조가 다변화되고 있음²⁰⁾

○ 일본에서 최근 자산집약형 재보험 거래가 빠르게 증가한 배경으로는 시가 기반의 자본 규제 도입, 고령화 및 금리 상승으로 인한 연금 수요 확대, 자본관리 효율성 개선의 필요 등이 있음²¹⁾

- 일본 자산집약형 재보험 시장 성장의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2026년 3월 시행된 경제적 가치 기반 지급여력비율 (Economic Value-Based Solvency Ratio, 이하 'ESR') 제도임
 - ESR하에서는 보험 부채의 가치평가가 원가에서 시가 방식으로 전환되므로, 보험회사는 금리 위험 등에 의한 자본관리 부담이 커짐²²⁾
- 또한 수요 측면에서 인구 고령화 및 금리 상승으로 인해 연금 수요가 증가하였고, 보험회사는 이에 대응하여 상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산집약형 재보험을 통해 자산운용 수익률을 높이려 함
- 이와 더불어 일본 보험회사는 자산집약형 재보험 거래를 통해 생긴 여유자본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해외 기업에 대한 M&A, 신규 사업 투자 증가를 통해 성장 기회를 확보하려 함²³⁾

○ 일본에서는 자본관리, 수익률 제고 등 보험회사 목적에 따라 블록형 및 플로우형 거래가 모두 이루어지고 있음

- 블록형 거래는 장기 저금리 시기에 판매한 고금리 확정형 보험계약을 재보험회사에 이전하여 ESR 시행에 대비하여 금리 위험을 축소하고 자본관리 부담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짐
- 플로우형 거래는 주로 연금보험 등 저축성 보험의 수익률을 제고하여 방카슈랑스와 같은 채널에서 상품 경쟁력을 높이고 신규 판매를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짐

〈표 2〉 일본 자산집약형 재보험 거래 현황

거래 유형	발표 시점	재보험회사	원보험회사	거래 상품 종류	거래 규모
블록형(Block)	2022년 3월	Fortitude Re	Taiyo Life	개인연금	약 40억 달러
	2023년 4월	RGA	Daido Life	생명보험	약 1,530억 엔
	2023년 12월	Global Atlantic Re	Manulife Japan	생명, 연금 장기요양	약 5,740억 엔
	2024년 3월	RGA	Japan Post	개인연금	약 7,000억 엔
	2025년 3월	Fortitude Re	Taiyo Life	종신연금	약 6,000억 엔
	2026년 3월	Talcott Re	Japan Post	연금보험	약 1,000억 엔
	2026년 3월	Aflac Re Bermuda	Japan Post	종신연금	미공개

20) Hymans&Robertson(2024. 10. 12.), "Reinsurance developments in the Bulk Purchase Annuity market"

21) SOA(2024), "Asset Intensive Reinsurance in Japan: Current Trends and Future Outlook"

22) Milliman(2025), "Life insurance capital regimes in Asia"

23) AMbest(2025), "Japan Insurers See Growth Through Reinsurance, Acquisitions"

〈표 2〉 계속

거래 유형	발표 시점	재보험회사	원보험회사	거래 상품 종류	거래 규모
플로우형(Flow)	2023년 2월	Kuvare Re	일본 생명보험회사 2곳	정액(Fixed) 연금보험	미공개
	2024년 2월	Resolution Re	일본 생명보험회사	정액(Fixed) 연금보험	미공개
	2024년 7월	Talcott Re	Dai-ichi Frontier	연금보험	미공개
	2025년 7월	Resolution Life	Taiju Life	호주달러 양로보험	미공개
	2025년 10월	Pacific Life Re	일본 생명보험회사 2곳	종신보험	미공개

자료: 언론 자료, 각 사 보도자료

- 미국, 영국, 일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자산집약형 재보험 시장의 성장 배경으로는 보험회사의 자본관리 필요성, 사모펀드의 보험산업 진출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성 제고, 역외거래를 통한 자본 부담 완화 등이 있음
 - 한편 미국에서는 고도화된 자본시장을 바탕으로 요구자본 대비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특성이 자산집약형 재보험 시장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핵심 동력이 된 것으로 보임
 - 또한 국가별 차별적인 성장 배경으로는 영국의 연금시장 발달, 일본의 시가 기반 지급여력제도 도입 등이 있음

3. 시사점

- 기본자본 중심의 자본관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일본의 자산집약형 재보험 성장 동인은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직접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사례임
 - 일본에서는 ESR의 도입과 연금보험 수익률 제고에 대한 소비자 수요 증가로 자산집약형 재보험 시장이 성장하였으며, 현재 국내 보험시장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음
 - 국내 보험회사는 블록형 거래를 통해 역마진이 발생하는 고금리 확정형 보험을 재보험회사에 이전하여 기본자본 비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플로우형 거래는 연금 등 저축성 보험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노후 소득 보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자산집약형 재보험의 성장 배경 중 하나는 사모신용 등 대체투자를 통한 수익률 제고인데, 최근 사모신용 시장에서 나타나는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는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음
 - 자산집약형 재보험 성장을 가속화하였던 주요 배경으로는 사모펀드 계열 재보험회사가 사모신용 등 사모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수익률을 향상시켰기 때문임
 - 하지만 최근 사모신용 펀드에서 환매 요청이 급증하여 사모신용 시장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산집약형 재보험 시장에서도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 보험회사는 자산집약형 재보험 거래 시에 나타날 수 있는 환수위험, 거래상대방위험 등을 비롯하여 시장 불안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여 리스크관리를 고도화하여야 함

○ IAIS는 자산집약형 재보험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음²⁴⁾

- 자산집약형 재보험 거래는 본질적으로 복잡하고 맞춤화되어 있으므로, 일괄적인 방식이 아닌 거래별로 위험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재보험회사가 주로 투자하고 있는 비상장 자산은 공개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정확한 가치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감독당국은 보험회사가 계리, 자산운용, 모델평가 등의 분야에서 충분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재보험계약에 대한 세분화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시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을 모색하여야 함
- 금융시장 불안 확대에 따라 환수위험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원보험회사의 지급여력이 충분히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소수의 재보험회사에게 자산집약형 재보험 거래가 집중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환수위험이 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은 예상보다 높을 수 있음
- 역외 중심으로 자산집약형 재보험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감독당국은 규제 차이로 인한 재보험 거래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국제적인 협력도 이루어져야 함

○ 자산집약형 재보험 거래는 이차역마진 부담 완화, 자본관리 효율성 및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전략적·정책적 검토가 필요함

- 보험회사는 자산집약형 재보험 거래로 인한 효과를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재보험 거래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신용위험, 환수위험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관리 수단의 모색이 필요함
- 다만, 외국계 재보험회사 국내 지점의 국내자산 보유의무²⁵⁾와 같이 자산집약형 재보험 거래의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 간 균형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 여부를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24) IAIS(2025), "Issues Paper on structural shifts in the life insurance sector"

25) 「보험업법」 제75조